

불어권 퀘벡의 문화적 독창성에 관한 연구(I)* — 정체성 문제를 중심으로 —

유평근 · 이 환

16세기부터 프랑스의 식민지 정체으로 시작된 북아메리카 대륙을 향한 불어계 주민들의 이주는 그 땅에 퀘벡이라는 불어권 사회를 낳게 되었다. 하지만 퀘벡은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갖추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적잖은 난관을 겪어야 했다. 이 불어권 사회가 감수해야 했던 어려움의 대부분은 북미의 패권을 다투는 식민지 전쟁에서 프랑스가 영국에 패배한 사실에 기인했다.

'피식민 식민자'들이 되어버린 퀘벡의 불어계 주민들은 영어권의 끊임없는 동화의 위협에 노출되었고, '정복당한 정복자'의 집단 자의식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퀘벡인들은 불어를 수호하는 길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는 수단으로 간주하고 이를 위해 노력을 경주해 왔다.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의식 개혁 운동인 '조용한 혁명'은 종래의 안일한 이중언어주의를, 불어만을 사용하는 단일언어주의로 선회시키기에 이르렀다.

영어권에 둘러싸인 지정학적인 상황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퀘벡의 분리주의 운동은 카나다 내의 양대 언어권이 불가피하게 사로잡혀 있는 민족감정이라는 성향에서 서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표출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나다에서 현존하는 이질성의 공존, 즉 이질적 집단의 공조체제라는 특수구조야말로 카나다가 지구상에서 다문화주의가 자리잡을 수 있는 예로써 제시될 수 있는 근거인 것이다.

정보의 시대에서 창조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퀘벡은 그들은 기충문화와 토속성을 가지고 미국이나 영어권 문화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문인이나 예술가들이 이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다 고급한 문화의 축적을 이루어 불어권 사회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과 독창성을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

I. 서 론

어느 집단의 문화에 관한 고찰을 시작할 때 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문화라는 용어가 함축하고 있는 양면성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그 양면성이란, 첫째, 원칙상으로 어느 문화집단이나 동일하게 전수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에 관련된 다분히 물질적인 측면으로서 예컨대 '개발문화', '미개발문화' 또는 '개발도상문화' 등의 구분이 가능할 것이고, 또 둘째로 자신의 독창성이 발현될 수 있는 변별적 측면, 예컨대 자신의 전통에서 벗어난 혁신문화 또는 타문화와 구별되는 독창적 문화의 개념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느 쪽이건, 문화의 형성이란 한 집단의 내적·외적 관계, 교류와 갈등을 통해 이루어지기 마련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세계 문화 혹은 인

* 이 글은 교육부의 지역연구 지원사업에 따른 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된 것임.

류 전체가 공유하는 문화를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얻게된다. 그러나 애초에 관계가 형성되고 교류와 갈등이 이루어진다함은 이미 그 집단들 사이에 공유되는 부분 못지 않은 변별성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인류 역사를 통해 수없이 많은 문화집단들이 지나치게 문화를 공유하다가 타집단에 흡수되었고 역시 지나친 문화적 차이로 인해 타집단에 의해 궤멸되어 왔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문화집단의 특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집단만이 갖는 특이성, 이웃하는 타 문화집단과 갈등 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해석되는 변별적 요소를 추출해내는 것이 첫번째 작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앞서 전제한 문화의 양면성 가운데, 그 문화집단만이 공유하는 정신과 맥을 잇는 변별적 측면에 관심이 경도될 수 밖에 없게 된다.

일반적으로 한 집단의 삶은 현실을 기초로 하되 또한 자신의 균원을 주관적으로 기억하고 또 자신의 운명을 과감하게 개척하도록 만들어주는 집단 특유의 신화를 창출하면서 성취된다. 이때의 신화란 현실인식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그 인식의 한계를 초월하여 용기, 신념, 불안 등의 인간 내면의 정서적 요인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탄생하는 것이다. 결국 이때의 신화란 한 집단의 상상력이 구체적인 현실에 직면하여 만들어내는 꿈의 총체적 표현인 셈이다. 그것은 집단적 동상이란 언제나 현실로 구현되기를 꿈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퀘벡과 같이 남다른 역사적 역경을 경험하였고 현재에도 이웃하는 문화집단과의 갈등때문에 적지 않은 정치적·사회적 불안을 안고 있는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등의 연구가 아무리 빼어나다고 하더라도 그 집단의 신화를 외면하고서는 사회적 본질을 규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현재의 퀘벡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개관해야 할 필요성을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이글의 논지가 될 수는 없다. 이 연구의 일부도 퀘벡의 역사 전개 과정을 주목하면서, 오늘날의 퀘벡 사회의 특성을 도출해내는데 바쳐질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된 퀘벡 사회에 대한 연구는 통시적으로 드러난 기록된 역사와 공시적으로 현재 혼돈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상인 한 문화집단에 대한 객관적 기술이 아니다. 우리가 밝히고자하는 것은 이 역사를 움직이게 하는 균원적인 힘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 원동력이 어디서, 또 어떻게 표출되는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한 문화의 기층에 자리하는 균원적 힘이 구체적인 형상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로 신화라는 생각에서 여기의 논의는 출발한다.

그렇다면 신화는 누가 만드는가?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가 꿈꿀 수 있는 권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를 생산하고 체계화하는 일의 그 첫번째 뜻은, 집단이 열망하는 바로서의 ‘신화 내용’을 실현해낸 현실의 인물이 아니라, 이와 같은 ‘신화 내용’을 형상화하는 예술가들, 다시 말해 그 집단의 구성원들의 무의식 속에 잠재해있는 불안과 욕망에 구체적인 모습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그 집단 구성원들이 가시적인 모습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시인과 소설가로 대표되는 예술가 일반이 담당할 것임은 자명하다 하겠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와 이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들의 내면 세계가 갈구하고 있는 바와 함께 삶의 조건이 그들에게 운명지워준 슬픔과 기쁨을 어떻게 꿈꾸며

살아가는가를 가장 구체적으로, 그리고 가장 심층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들의 언어를 통해 하나의 문화집단은 정체성을 노정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이 연구는 대별되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궁극적으로는 퀘벡의 현재의 모습 혹은 그 정체성을 하나의 신화 형상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해 우선 제1부에서 퀘벡 사회가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을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면서, 정체성의 추구라는 끈질긴 자기확인 노력이 퀘벡의 역사와 사회에서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부각되도록 할 것이다. 카나다의 불어 사용 주민들의 영어 사용 주민들과의 갈등의 역사라고 정의될 퀘벡의 역사 혹은 수난사는 단순히 북미 대륙의 식민지 개척 당시 영국과 프랑스의 군사적 충돌이나 그 결과인 영국의 승리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프랑스의 식민지 양여 이후 200년 동안 영어 사용자 집단에 의한 불어 사용자 집단의 지배라는 언어권 사이의 대립과 갈등은, 패배자로서 이제 피식민자 집단으로 전락한 불어 사용 주민들에게, 정치·경제적 불평등에서 비롯되는 외적인 압박에 앞서, 일상적인 의사 소통 도구의 차별에 의해 일상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다가왔다. 또 그것이 이들 퀘벡의 불어 사용 주민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또 이들이 프랑스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불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이들의 변함없는 정체성을 보장해주는 지주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카나다의 불어 사용 주민들이 처한 정신적 상황의 특수성을 찾을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프랑스라는 기존의 전통 문화를 근본으로 가지고 본국을 떠나온 이들 불어 사용 식민자들은 북미 대륙에서 ‘프랑스 카나다 Canada français’라는 별개의 역사를, 그것도 영국계 식민자들의 지배하에서 살아가야하는 특수한 역사를 지니게 된 것이다. 따라서 퀘벡의 불어 사용 주민들은 자신들을 버린 프랑스 본국과도 다르고, 자신들과 같은 땅에 살면서 자신들을 지배하는 영국계 주민들과도 상이한 정체성을 이루어가게 된다. 프랑스 정부의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영국 정부를 배경으로 집요한 동화 정책을 펴오는 영어권의 카나다 정부의 압력과 더불어 밀물처럼 몰려드는 휘황한 물질 문명의 미국이 압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퀘벡의 불어 사용 주민들이 내부의 분열을 이겨내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가를 추적하는 것이 제1부가 다를 주제이다.

이 논문의 제2부는 퀘벡의 문학사를 따라가며, 퀘벡의 불어 사용자 집단이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문학 작품을 통해 구체화해 왔는가를 살피는 노력을 경주하게 될 것이다. 이는 물론, 한 문화 집단의 입체적 이해가 단순히 문학사만을 따라가는 소극적이고 부분적인 접근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환상에 우리가 맹목적으로 빠져들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표현 방식과 다른 의미 내용으로 한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사회의 정체성에 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이를 기억하여 보존하며, 또한 새롭게 모색하고 창출해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현상에 대한 조명을 계획하였다. 연구자들이 불어불문학을 전공한다는 이유에서, 불어로 쓰여진 퀘벡의 문학작품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정해서는 퀘벡 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우리의 연구 목표의 달성을 무망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1960년대의 ‘조용한 혁명 Révolution tranquille’ 시절에 퀘벡인들의 관심을 끌어모았던 연극은 물론, 그 상업성과 더불어 대중성을 확보하면서 현대 사회의 정신 기층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화와 대중 가요, 또 불어 사용 주민들 사이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대중 집회의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낸 각종 음악회와 시 낭송회 등을 분석함과 더불어, 이러한 정체성의 탐색을 지향하는 문화 활동 전반에 관해 내보인 퀘벡인들의 관심이 오히려 주요 분석 대상이 되어야 연구가 입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었다. 이같은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연구 인력이 동원되어야함은 물론, 이들이 현지에 짧지 않은 기간을 체류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자료들을 섭법·수집할 수 있어야함은 자명하다 하겠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너무도 제한된 인적 및 물적 조건 때문에 이같은 방대한 연구 계획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두고자 한다. 그것은 물론 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위해 바칠 수 있는 우리의 연구 인력 자원과 지원 능력의 한계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 때문에 단기간내에 한정된 연구 인력을 가지고 퀘벡 사회의 일단을 드러내기 위해 가능한 서지 자료의 분석에 만족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의 문학작품들을 선정하고, 그 분석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로서는 예술 작품 일반이 한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는 소위 ‘반영 이론’에 방법론적 토대를 구축할 의도는 없다. 그러나 연구의 주제를 좀 더 명료히 하겠다는 방법적 의지에서 퀘벡의 문학사를 통해, 특히 정체성의 문제에 그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판단한 일부 작품의 분석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이미 앞서 전제한 바대로, 문학은 다른 여러 문화 행위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수용자의 미학적 만족감을 충족시키는 기능만이 아니라, 가장 소박한 의미로 한 집단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거울로서 그 집단의 내적·외적 갈등을 표출해내는 기능을 수행함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문화 행위가 사용하는 표현 수단보다는, 상대적이기는 하겠지만, 보다 더 일상적이고 또 논리적인 표현 수단인 언어를 사용하는 문학은 이러한 소극적인 현상 제시와 고발의 단계를 뛰어넘어, 그러한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집단의 내적·외적 갈등에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적극적 기능을 수행한다. 정체성의 탐구라는 연구 목표와의 관련하에서 이를 달리 표현한다면,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기저인 언어를 표현 수단으로 하는 문학 작품들은 그 사회를 유기적이고 총체적으로 조명하므로써 그 사회에 고유한 동질성을 드러내고, 이와 동시에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이와 같은 동질성을 기억하고 있도록 촉구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는 그 사회의 정체성을 뿐이 가는 주체가 되는 예술 문화 현상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예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작업을 불어로 써여진 퀘벡의 문학 작품에 집중시킨 것은, 문학이 한 집단의 ‘신화 내용’, 그 집단이 역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통해 공유해가는 ‘신화 내용’을 그 집단의 ‘언어’로 담아내는 대표적인 문화 행위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며 현재의 연구 여건에서 보아 연구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분석 대상이라고 판단한 까닭에 서이다.

II. 불어사용지역 퀘벡의 사회적 상황

한 언어를 말한다는 것은 언제나 무언가를 의미한다. 특정언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은 언제나 일정한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카나다에서 불어를 쓴다는 것은 사회의 하층에 소속된다는 것을 뜻하곤 한다. 그 사회에서는 영어 사용자의 소득이 영어와 불어를 모두 할 줄 아는 두 언어 사용자의 소득보다 대체로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 이웃 나라인 미국에서 불어로 몇 마디를 하면 그 사람이 세련되고 우아한 문화를 호흡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곤 한다. 이처럼 동일한 언어라 하더라도 사용 지역에 따라 그 사회적·경제적 의미와 충위가 달라지는 것이다.

언어란 단어의 단순한 조합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가장 은밀한 의사 표현인 동시에 가장 외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개인적일 뿐 아니라 집단적인 매체인 언어는 언제나 그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문화와 긴밀하게 관련되기 마련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카나다 퀘벡 주에서 사용되는 불어가 그 지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어떠한 특성을 유발하며, 그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에 접근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선, 퀘벡에서 불어가 사용되게 된 역사적 배경, 그리고 퀘벡이 불어를 사용하므로써 겪어야 했던 역사상의 사실들을 서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북아메리카 대륙이라는 영어권 속에 위치해 있는 지정학적인 여건 속에서 퀘벡인들이 영어와 영어권 문화의 거센 압력과 맞부딪쳐 퀘벡 고유의 불어 문화를 창달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양상을 제시할 것이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퀘벡 사회의 문화적 정체성으로 꼽을 수 있는 현실을 열거함과 아울러, 그들이 자신들의 민족적인 동질성을 확인하고 발현함으로써 어떠한 방향으로 자신들의 나아갈 바를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1. 퀘벡의 불어 사용의 역사적 배경

북아메리카 대륙 인구의 단 2%가 불어를 사용하는 인구이다. 그리고 또한, 그 2%의 대부분은 퀘벡 주에 거주하고 있다. 16세기 서구 열강의 하나였던 프랑스의 식민지 팽창주의 노선은 오늘날 퀘벡 지역을 불어화하는 역사상의 계기가 되었으며, 그 이후로 불어는 퀘벡 주의 문화적 정치적 특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 왔다. 그러므로 불어권 퀘벡의 문화적 독창성에 대한 연구는 이 불어권 문화의 정착과정에 대한 역사적 조명을 먼저 요구한다. 오늘날 퀘벡에서 사용되는 불어와 이를 통해 배양된 불어권 문화가 정착되기까지에는 수 많은 역사적 난관이 있었고, 퀘벡 지역의 불어와 불어권 문화는 바로 이러한 난국을 극복해 가는 여정 속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 과정은 보통 4단계로 대별되는데, 그 첫번째 시기는 1534년 샤크 카르티에 Jacques Cartier가 생 로랑 Saint Laurent을 발견한 것을 시초로 하여 유럽인들에 의해 카나다에 식민지 개발이 진행된 시기이다. 두번째 시기는 프랑스와 영국 간에 식민지 쟁탈전이

치열했던 시기이다. 이 과정에서 7년 전쟁의 패배로 프랑스가 신대륙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영국이 카나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것이 제 3기에 해당하는 영국 통치기이다. 이때부터 하나의 독자적이고 지배적인 문화로 성장해 오던 이 지역 '불어권 문화'가 영국의 통치 후 '영어권 문화'와 마찰을 빚으면서 점차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는데 그 같은 무엇보다도 언어 문제를 중심으로 침해화되었다. 영국으로 통치권이 이양됨에 따라 더 이상 불어가 북미 제 1의 언어라는 자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이 지역 불어권 사람들은 이를 자신들의 민족성, 문화가 맞이한 정체성의 위기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언어란, 그것을 사용하는 집단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고 그 집단의 문화를 키우는 밑거름이요, 영혼이기 때문이다.

영국 통치기에 들어오면서 이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언어인 불어와 자신들의 종교인 카톨릭을 보존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인다. 그 결과, 1774년에 종교와 언어의 자유를 허용하는 '퀘벡 헌장'이 포고되므로써 카나다 불어권의 존재가 인정받게 되는데, 이렇게 된 데에는 불어권 카나다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끽지않게 영국의 유화적인 통치 방식이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정치·경제 등 사회 전반에 주도권을 잡게 된 영국계 사람들로서는 프랑스계 사람들에게 억압적이고 급격한 언어 동화 정책을 쓸 필요가 없었다. 또한 미국에서의 독립전쟁으로 영국과 미국이 맞서 있던 당시의 정세를 고려해 볼 때, 강압적인 정책보다는 유화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든 탓도 있다. 즉 카나다의 불어권 사람들이 독립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용감히 싸우고 있는 미국인들을 동정하게 되고, 자신들도 독립에 대한 의지를 다지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영국 왕실이 이와 같은 영리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영국인들의 이러한 실용주의 정책은 소수 집단인 프랑스인들에게 미국의 독립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게 하였다. 왜나하면 일종의 보수주의 정신과 농민 특유의 조심성, 그리고 지리적인 고립 등으로 해서 정치적인 혼란과 영국인들과의 동화라는 위협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프랑스인들이 완전히 소수 민족으로 소외되어 중앙무대에서 큰 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한을 지닌 집단이었으나 독립을 외칠 만한 힘을 아직 배양하지 못했던 것이다(원윤수, 1994 : 71-72).

영국의 이러한 유화적인 통치방식이 지나친 억압정책에 비해 불어의 보존에 더 유리하게 작용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역시 영국 통치하의 상황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불어가 사멸되지 않고 보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불어권 카나다인들의 언어를 지키려는 남다른 노력으로 설명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동화를 유도하는 외부 세력의 위협 속에서 언어를 정체성과 주체성의 확립 수단으로 간주하여 보전하기 위해 애썼다는 점이 역시 커다란 역할을 행했던 것이다.

퀘벡인들의 문화적 특성의 확립에 불어가 지녔던 중요성은 카나다 역사과정의 제 4 기로 볼 수 있는 카나다 연방기, 그중에서도 특히 조용한 혁명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의 카나다 불어권의 상황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된다. 카나다 불어권에서 볼 때, 카나다 연방기는 카나다에서 불어권의 지위가 점점 더 격하되는 위기의 시기이다. 영국의 통치가 시작되면서부터 예상하던 대로 카나다 불어권 지역의 경제적·수적 열세가 눈

에 떠던 중에, 연방기에 들어오자 그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된다. 그 결과 퀘벡 주를 제외한 불어권이었던 다른 주는 거의 대부분 영어권에 동화되었으며, 결국 퀘벡 주마저도 10개의 영어권 주에 둘러싸인 소수 민족의 피지배 계층으로 전락하고 만다. 또한 퀘벡 주 내에서도 소수의 영국계가 대부분의 경제권을 장악해버린 까닭에 일터에서는 영어를 쓰고 집에 돌아와서나 불어를 쓰는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한마디로 퀘벡 주로 대표되는 카나다 불어권은 영어권으로부터의 끊임없는 동화의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형편이었다.

하지만, 이 시기라고 해서 그간의 역사과정에서 보여졌던 정체성 유지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된 ‘조용한 혁명’ 속에서 그러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용한 혁명’이란, 1960년대 말 퀘벡을 중심으로 한 카나다 불어권 사회에서 일어나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의식개혁 운동으로, 여기서도 언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 의식개혁 운동을 통해 퀘벡의 불어사용자들은 그들의 언어의 현실을 적시하게 된다. 카나다 정부가 영어와 불어, 이중언어 정책을 공식화하고 있기는 하나, 영어권의 거대한 실체 앞에서 이러한 이중언어주의가 한낱 실락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 때문에 1975년부터 퀘벡의 언어정책은 안일한 이중 언어주의에서 벗어나 불어만을 사용하는 단일언어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다. 그것은 날로 거세지는 영어권의 위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자, 퀘벡지역 내에서나마 불어의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으려는 자구책이었다.

그러나 ‘조용한 혁명’ 속에서 보여지는 이들 퀘벡인들의 언어정책이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을 지닌 것은 아니었다. 이중언어주의에서 단일언어주의로의 선회는 60년대 말 영어계도 아니고 불어계도 아닌 소수민족 이민자들 언어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생-레오나르 Saint-Léonard에서 나타났듯이 자칫 불어 사용을 원치 않는 그 지역 내 소수민족에게도 불어사용을 배타적으로 강요하여 오히려 그들의 반발을 사고, 타지역으로 이주하게 만들기도 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퀘벡이 자신의 정체성 확립에만 꿀꿀한 나머지 카나다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민족들의 다양성과 독자성을 인정치 못한다는 비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2. 퀘벡인의 정체성의 두 지주 – 불어와 카톨릭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퀘벡이 겪은 역사적 정황은 불어를 사용하는 그들이 민족적 정체성을 세워 나가는 데 순탄한 여건만을 제공해 주지는 못했다. 그 모든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식민지 전쟁에서 프랑스가 영국에 패해 퀘벡 지역을 영국의 지배 하에 넘겨 주었다는 것이다. 당시, 퀘벡의 대부분의 불어 사용자들의 직업은 농업이었고 근본적으로 프랑스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이들의 종교는 카톨릭이었다. 이들은 북미 대륙에서 개신교 영어 사용자들에 둘러싸인 채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압도적인 영어사용 판도 속에 처하게 된 퀘벡의 불어는 그 고립된 언어환경으로 인

해 언어의 자연적인 통시적 변천이 지연되게 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 퀘벡 지역에서 사용되는 불어에는 예스런 말투가 많이 남게 되었다. 가령 퀘벡인들은 점심이라는 말을 ‘dîner’로 표현하고, 저녁 식사를 가리켜 ‘souper’라 하는데 이는 18세기 까지 프랑스에서 쓰이던 용례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고정된 형태이다. 한 예로 18세기의 프랑스 작가 니드로 Diderot의 작품을 보면, ‘dîner’를 점심, ‘souper’를 저녁 식사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불어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의미와 형태 상의 허다한 변화를 겪은 불어이다. 프랑스 상류 사회의 사람들은 그 이전 보다 점점 더 늦게 일어나는 습관을 갖기 시작했고, 그 결과 원래는 아침 식사였던 ‘déjeuner’를 11시 반 경에 들게 되어, 그 의미가 점심을 가리키게 되었고, 연쇄적으로 ‘dîner’라는 단어가 ‘souper’를 밀어 내었다. 이와 유사한 예로, 퀘벡에서는 쟁반이라는 의미로 ‘cabaret’를 사용하는데, 사전을 참조해 보면 이는 벨기에나 퀘벡에서만 사용되는 고어식 표현으로 나와 있고, 이에 상응하는 프랑스의 현대 불어는 ‘plateau’이다. 이 외에도, 자동차 정비소에 가면 “mettre votre char là-bas”라고 하는데, 이 때 ‘char’ 역시 자동차 ‘voiture’의 고어식 표현이다(Jean-Marie Klinkenberg, 1991 : 101-102). 이처럼 불어가 퀘벡지역에서 고유의 역사적·통시적 삶을 사는 동안, 프랑스 불어와 어휘적 특징이 상이한 퀘벡 불어가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퀘벡의 불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주알 le joual’이라는 하나의 방언을 형성하기에 이른다(Léon Dion, 1987).

한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퀘벡 불어의 고유한 특징에 대하여 프랑스는 대체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 물론 이는 불어 자체가 지니고 있는 프랑스 지향적 구심력 때문이다. 영어의 예와 비교한다면, 영어는 그 사용권의 중심이 신대륙으로 옮겨 갔기 때문에 사정이 불어와는 정반대여서, 세계 각처에서 영어가 사용될 때 그것이 런던식 억양이나 액센트가 아니라고 할책 받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불어의 경우는 이와 달라서, 오늘날 소위 표준 불어는 프랑스의 수도 빠리의 불어 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빠리에서도 제 6구가 출판 문화 언론의 중심인 탓에, 불어 사용자들은 실상 파리 제 6구의 불어를 말하도록 강요받은 셈이다. 이런 까닭으로 불어를 상용어로 하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그들이 불어를 사용하면서 이루어온 지역적이고 화용론적인 차이를 하나의 오류, 혹은 과오로 인식받으며 마치 그것이 일종의 열등의 표징인양 대접받기에 이르렀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프랑스에서 매년 개최되는 “철자법 경시대회”가 시사하는 의미가 그려하다. 완벽한 불어 문법의 원천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일탈하는 것은 반드시 교정해 주어야 할 실수라는 식의 관념을 심어주는 일에 이 경시대회는 공공연한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이 경시대회는 유명한 프랑스 작가들이 문법에는 어긋나지만 문학적으로는 성공한 표현을 썼을 때, 그것이 표준불어라는 규범에는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넘어서는 위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특히 유명한 작가인 경우) 결국은 불어라는 규범을 완성시키는 데에 일조한 것이라는 의식을 고취하려는 듯한 인상까지 풍긴다. 이러한 분위기 탓인지, 퀘벡 혹은 벨기에 등의 여러 불어 사용지역은 순수 불어주의를 지향하려는 언어 결벽증에 걸려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정작 프랑스에서는 영어를 차용하거나, 문법에 위반되는 자유로운 표현법을 구사한다든

지, 신조어들을 만들어 낸다든지 함으로써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변화와 생성이라는 언어의 생리상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며, 이는 비단 프랑스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나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렇듯 사회환경으로 인한 혹은 발화상황으로 인한 언어의 변화가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를 제외한 지역, 벨기에, 아프리카, 퀘벡 지역의 불어의 변화와 그에 따른 변이체들은 정당화되기 보다는 우스꽝스런 오류, 혹은 비문법적인 용례로 평가절하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인쇄술과 교육제도의 발달로 인해 문법이 널리 보급된 지금, 문법을 교육시키고 습득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건 당연한 의무가 되어 버렸다. 퀘벡도 결코 예외가 아니어서 불어 문법은 초·중등 교육기관에서 필수과목으로 채택되어 있다. 그런데 그 교육 내용의 수준에 관해서는 논의가 분분하다. 그 까닭은 퀘벡의 학생들의 불어가 쓰기와 말하기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어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퀘벡인들 사이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현상에 대한 자체 진단도 내리고 있다. 퀘벡인들은 자신들의 원천인 프랑스를 의식하고 또 그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운명을 태고 났지만, 그들의 생활 영역이나 풍토환경 tellurisme¹이 프랑스적이지 않으며, 감수성에서도 또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위 표준불어라 불리우는 빠리 불어의 글쓰기나 표현법을 습득하기란 그리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미 대륙에 편재한 영어와 영어권 문화의 영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점 역시 퀘벡인들이 개인으로서나 민족으로서 향유할 문화의 저변을 규정짓는 구심점인 불어의 안정된 삶과 정착에 강한 파장을 던지고 있어, 퀘벡인들은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 된다. 프랑스의 불어를 익혀야 된다는 의무감이 그 첫번째 부담이고, 금융·산업·정치 등 제반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언어인 영어의 판도가 세계 어느 곳보다 강한 미국과 영어권 카나다의 정치적 영향을 강하게 받음으로써 자신들의 모국어인 불어가 잉여적인 언어로 취급받는다는 인식을 언제나, 누구보다도 강하게 지니고 생활해야한다는 것이 그 둘째 이유이다.

이러한 언어·문화적 상황 속에서도 퀘벡이 추구하는 목표는 과거와 크게 다를 바 없어, 여전히 프랑스의 문화를 신대륙에 창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의 본래의 문화를 이식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조국을 떠나 왔지만, 그들의 식민지 경영방식과 정서 속에는 언제나 그들의 원천, 즉 어머니의 모태와 같은 프랑스, 어머니-프랑스 Mère-France가 공간적으로는 부재하되 정신적으로는 엄존하고 있고 오히려 의식 속에 더욱 더 뚜렷하게 자리잡게 되어, 프랑스는 결국 생활의 기준이 되어 버렸다. 가령, 퀘벡 주의 건축양식은 프랑스를 모방한 것이 많으며, 거리 이름에도 빠리의 지명을 차용한 것이 많은 것도 이러한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또한 교육제도를 살펴 보면, 학교 교육이나 지적인 훈련 등 거의 모든 국면에서 프랑스의 전통이 나타나곤

¹ Gaston Miron은 『수선된 인간 L'Homme rapaillé』(Montréal, Presses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1970, p.75.)에서 이 “풍토환경”이라는 용어를 풍토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변화하기 시작한다. 퀘벡의 교육 행정의 입안자들이 언어와 문화의 진보를 위해 과거에 표방했던 교육목표를 포기해 버린 것이다. 급기야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엘리트 육성’, ‘민족의 발전을 위한 천재 교육’, ‘보편적인 것 속에서의 도약’, ‘관용하는 심성의 고취’ 같은 이념들이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고, 오늘날 퀘벡인들이 그리는 자화상적인 정체성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되었다.

개오르고 데면데면하고 헤풀어진 두뇌, 이것이 우리의 두뇌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건, 정화하고 뚜렷한 프랑스어를 말하지는 못하겠지(Léon Dion, 1987 : 128).

자신들의 언어 현실에 대해 이처럼 자조적인 생각을 갖는 이유는, 그들의 민족적 운명의 행로가 불어에 의해서 결정되었으며, 동시에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불어가 있는 그대로의 가치로 인정받기 보다는 열등한 것으로 대접받는 현실에 대한 의식 때문이다. 그러나 카나다 땅에서 영국과 프랑스 간의 영토 쟁탈전이 벌어졌을 당시, 프랑스인들을 결속시켰던 것은 바로 불어였으며 이 공통 분모 때문에 그들은 내부적으로 민족적 동질감과 애족의 정서를 느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혼신적으로 싸우며 수호한 불어와 이를 사용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언어문화적 정체성이 그에 상응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 불어라는 매개체와 더불어 퀘벡인들로 하여금 프랑스적인 정체성을 갖게 한 또 다른 요소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카톨릭 신앙이다. 언어와 문화의 존립에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어권 카나다의 힘에 대항해서 퀘벡인들의 주체적인 정당성과 우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논거가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서 그들은 ‘교황지상권론’을 채택하였고, 여기에 톱니가 맞물려 들어간 세력이 바로 카톨릭 성직자들이었다. 카톨릭 사제들은 불어에서 카톨릭 신앙의 존립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성벽을 발견했던 것이다. 이리하여 오랜 세월 동안 불어의 대의명분과 신앙의 대의명분이 뒤섞이는 현상이 생겨났다. “언어는 신앙의 수호자이다 La langue est la gardienne de la foi”라는 명제가 “신앙은 언어의 수호자이다 La foi est la gardienne de la langue.”라는 말로 치환되곤 했다. 이러한 와중에서 결국은 후자가 더 위력적인 구호로 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 변화를 거치는 동안 카톨릭의 교세가 급속히 약화되었고, 그 결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식의 논의는 더 이상은 필요치 않게 되었다. 언어와 종교라는 문화의 두 가지 차원이 퀘벡에서도 더 이상 필연적인 관계를 이루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사제들이 퀘벡에서 막강한 정치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교회 지도자들과 세속 지배계층 사이에 계속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그럴 때마다 이 두 세력 간의 갈등은 주교들의 “칙령”이나 “교서”的 포고를 통해 해결되는 형식을 취하곤 했었다. 종교가 서민 계층과 그들의 사제를 인도하는 지침이자, 정치적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지배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퀘벡의 신부들이 불어의 수호를 위해 열정적으로 싸웠다는 것은 대의명분으로 보나 실질적인 면으로

보나 당연한 귀결이었다고 하겠다.

이제까지 언급한 사실들을 되새겨 볼 때, 이 모든 논의의 시발점은 퀘벡이 불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이었으며, 바로 이 때문에 퀘벡이 북미 대륙에서 하나의 색다른 집단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퀘벡의 이와 같은 언어 조건은 퀘벡인들에 대한 외부인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퀘벡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와도 아주 긴밀하게 관련된다. 퀘벡의 어느 사상가는 퀘벡인을 “정복당한 정복자 conquistador conquis”(Jean Larose, 1981 : 2)로 규정했는데, 이는 그들의 불어 사용이라는 현실적·역사적 조건의 의미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지적이라 하겠다. 그들은 정복자였다. 과학 기술의 발전, 탐험가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그들의 기독교 신앙과 맞물린 식민지 팽창 정책은 프랑스의 제국주의의 뱃머리를 오늘날의 카나다로 향하게 했으며, 그 지역을 정복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그 정복자의 언어가 불어였기 때문에 불어는 퀘벡인들의 근원이 되었으며, 어머니-프랑스의 표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들 정복자가 그 후 영국 식민주의자와 전쟁에서 패해 영국의 피식민인이 되었다. 이를테면, “피식민 식민자”가 되어 버렸다. 달리 표현하자면 “도둑맞은 도둑, 포위당한 개척자”이다. “백인 니그로”가 되어버린 이 “노예제도 주장자들”(Jean Larose, 1981 : 2-3)은 그들을 향해 침입해 오는 영어와 그 문화 그리고 본래 그들의 근원인 불어와 그 문화 사이의 방정식을 민족적 삶의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백인 니그로”라는 말이 환기 하듯이 그들은 니그로가 북아메리카에서 암시하는 의미의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북미에서 ‘니그로’란 힘은 소외된 하층집단을 함축적으로 지시한다. 그래서 “니그로처럼 일한다”, “니그로처럼 더럽다”, “흑인처럼 무식하다”, “흑인처럼 기분 나빠진다”, “흑인처럼 위험하다” 등의 표현이 일상적으로 쓰이는 것이다(Jean Larose, 1981 : 3). 이러한 신분 상의 이중성은 그들이 하나의 구심점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갖는 일을 저해하는 일종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왜냐하면 어느 민족이건 그들의 민족성이 그 구성원의 특성을 규정하기 마련이며 그 구성원들은 민족적 정체성의 테두리 내에서 사회적 자아를 실현해 가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신을 처음에는 정복자로 그 후에는 피정복민으로 인식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 반영되고 있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자기 규정은 다음과 같다. 영어를 사용하는 카나다인들의 지배를 받아 왔고, 지금도 그 지배 하에 있다는 생각,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근접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약한 소수라는 생각 등이 그들로 하여금 위축된 집단 정체성을 가지게 했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지니고 사는 동안, 너무 오랜 세월을 땅에 용크린 채 살아 왔기 때문에, 카나다 혹은 북미 대륙이라는 거대한 전체 속에 조금씩 조금씩 해체되어 왔다는 피해의식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피해 의식은 곧 이들로 하여금 배타적 태도를 내보이게 하였고, 이것이 마치 민족주의적인 태도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생겨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소극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조명하려들면, 역사가 자신들에게 비극적으로 작용해 왔으며 그 때문에 소외되고 박탈당하고 지배받는 민족으로 살 수 밖에 없었다는 순환 논리적 합정에 빠져들 수 밖에 없음을 자명하다 하겠다.

양식있는 퀘벡인들은 이는 마땅히 경계하고 지양해야 할 자세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운명론적인 역사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비판적임은 물론이다. 그에 대한 정신적인 대안으로 다른 시각들이 제시되곤 한다. 그 중의 하나가 힘의 논리를 통해 현실을 조명하려는 역사 인식이다. 즉, 어느 개인이나 공동체도 힘의 원칙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퀘벡이 보다 강한 세력의 지배 하에 처하게 되면서 소수의 피정복자라는 열등의식을 느껴왔고, 그러한 복합심리가 신경파민, 소심함, 열등감, 수치심, 자기혐오와 반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상실감을 안고 사는 불어권 카나다인들이야말로 앞서 말한 대로 “백인 나그로”(Pierre Vallières, 1967 : 25-26)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 나그로라 함은 한 사람의 인격체이기 보다는 누군가의 노예임을 의미하며, 신대륙의 부유한 양키들에게 흑인이라, 곧 하층민을 뜻한다. 단지 인종적인 이유 만으로, 백인 빈민들조차 삶의 조건에 있어 흑인들이 자기들보다 열등하다고 여기는 사회 통념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의 흑인 해방운동이 퀘벡의 노동자들에게 점차로 더욱 더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이유도 퀘벡인들이 자신에 대해 흑인과 같은 생존조건, 피착취자 혹은 이류 시민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는 자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열등의식은 극단적인 경우에, 자신을 부인하는 태도에까지 이르기도 한다.

이 점을 인정하는 것은, 이 민족의 소외, 즉 이 민족이 타자 속에서 자신을 상실해 버리는 현실에 나 스스로 협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나, 나는 존재는 시심(詩心)이 사라져 버린 두개골이라는 상자에 갇혀 죽어 있고, 내가 쓰는 언어와 나의 외모는 현실과 맞지 않고, 우연의 흐름속에 내던져진 채 중심을 잃어 버렸다(Léon Dion, 1987 : 110).

과거에 그들이 프랑스를 떠난 것은 당시의 상황을 억압적인 것으로 간주한 나머지 그곳에서는 자신들의 포부를 이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출발이 목적한 바를 찾지 못하자, 또 다른 출발을 바라게 되었고, 총괄적인 사회의 주체가 되고자 했던 당초의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자, 이번에는 부재하는 자신들의 조국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된 것이다. 그들은 자기 집에 있으면서도 이방인처럼 느끼고, 여전히 이민자라는 정체성에 괴로워한다. 그들의 언어가 지구 상에서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인데도, 정작 그들 자신은 그 언어 사용자의 표상이 되지 못하고, 언제나 그 왕좌는 프랑스에 내어 주게 된다. 위베르 아昆 Hubert Aquin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의 제 2의 조국이며 현재의 조국인 퀘벡이 국가 단위로 존재하지 못한 채 이제 까지 겪어온 계속적인 실패때문에 퀘벡인들은 땅에 “내팽개쳐 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내면의 목소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다. “나를 낳은 나라, 내가 사랑하다가 거기서 죽고 싶은 나의 진정하고 은밀한 조국은 어디에 있는가?”(Hubert Aquin, 1965 : 78, 95, 96)라고. 2세기 동안 계속되어 온 그들의 고뇌 끝에 노출된 고삐 풀린 폭력, 끊임없는 저격사건들, 그리고 광적인 조국애가 부추긴 정치적인 음모들도 바로 위와 같은 실패감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따르면, 그 실패감은 보통 세 가지의 유

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원에서의 실패, 둘째, 카나다인의 힘에 대한 실망, 세째, 자유의 가치에 대한 신뢰감 상실이다. 이 때 각 개인은 자기 자신을 반성하든지, 자신들의 소심함 때문에 자신을 무시하든지 하는 일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가령, 이 연구 후반에 보게 되겠지만, 에밀 넬리강 Émile Nelligan 같은 시인은 비극적인 시를 통해 자신의 무기력을 되새기므로써 “방황하는 퀘벡인 le québécois errant”의 전形을 재현한다. 이와 관련하여 베르나르 쿠르트 Bernard Courteau 역시 동조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넬리강이 대부분의 비평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결코 정신병자나 분열증 환자가 아니었으며, 단지 순응주의적이었던 시대의 희생물이었을 따름이라고 말한다. 반면에 퀘벡의 시인이며 소설가인 안느 에베르 Anne Hébert에게서는 “방황하는 퀘벡인”的 고독이 내면화 됨을 보게 된다. 이 여류 작가는 자기의 내부에 아주 잘 보호받을 수 있는 은신처를 마련해 놓음으로써 외부 세계가 주는 상처에 대비한 기제를 가지고 비교적 영리하게 무장하고 있다(Edwin Hamblet, 1987 : 30-60). 그의 소설에도 나타나 있지만, 퀘벡 사회에서 특유하게 나타나는 외부 세계와 자아와의 갈등을 보면 근대에 정치적인 이념으로까지 표방되었던 종교적인 이데올로기가 사회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는 사실이 있다.

이 때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것이 아주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최근까지도 계속된 경향이었다는 점이다. 카톨릭 성직자들이 정치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교육을 담당하므로써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왔고, 이러한 정치와 교회의 유착은 급기야 퀘벡 인들의 실생활의 구체적인 면까지 통제하려 한 성직자들의 지나친 간섭주의로 변질되어 많은 반발을 사게 되었다. 그 이유는 카톨릭 성직자들의 생활이 카톨릭 본연의 자애로움이라는 신앙적 이상에 배치되었기 때문이었다. 교육에 나타난 악영향을 고발한 단적인 예로서, 장-폴 데비앙 Jean-Paul Desbiens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는 불어 교육의 전문가가 아닌 성직자들이 불어 교육을 관장하고, 실제로 학생들에게 불어를 가르치는 일이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한 진의에 대하여 당시의 성직자들은 자신들의 부적합하고 시대착오적인 불어 교육을 고발한 댓가로 그를 추방하였고, 스위스에서 회개와 묵상의 나날을 보내도록 강요하였다.

이때, 퀘벡에서는 이른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 상투화될 위기에 놓여 있던 정신과 사회구조의 일대 혁신 작업이 벌어졌다. 이는 퀘벡이 겪은 식민지 전쟁에서의 실패감을 보상해 주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던 카톨릭의 궁정적인 역할이, 그 종교적 순수성을 상실하고 정치권력과 유착되면서부터 유발된 여러 가지 사회 부조리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었다. 이 운동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그 결과, 사회는 훨씬 더 자유로 와지고, 합리적인 자연스러움이 지배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인 정화의 움직임 속에서도 제기되는 집요한 질문은 사회적 자아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다. 요컨대, “절정의 문명을 꽂피우던 유럽 사회에서 도망쳐 온 장본인이 바로 내가 아니던가! 도망자가 깨끗해진다고 얼마나 나아진단 말인가”라는 비판적인 질문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한편에서 들려오는 이러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프랑스를 떠나게

된 계기가 프랑스 사회에 대한 전적인 거부에서 유래한 것이었다기 보다는, 그 찬란했던 문명이 함유하고 있었던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거부였으며, 나아가 새로운 성취를 향한 변화의 갈구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들이 성취한 사회·경제적 발전이야말로 자칫 자조적이 될 수도 있는 그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만한 동기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구체제 프랑스 사회에 귀속된 채로 생활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남아있지 않고 그 틀을 벗어난 배경에는,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이유가 물론 있을 것이다. 보다 더 근원적인 동기는, 제화를 축적하고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려는 목적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가능해진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험을 실행하려는 욕구로 불타올랐던 몇몇 용기있는 탐험가들의 시도가 점화시킨 신세계를 개척하려는 열정이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땅에 정착하고 난 후, 그들은 찬란히 개화되었던 유럽의 문명을 이미 체험하였던 터라, “어머니 프랑스”에 대해 일종의 향수와 귀소본능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3. 영어문화권의 영향

우리는 앞 장에서 불어권 퀘벡인의 역사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두 주요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들의 정체성에 간섭도 하고 때로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외부 요인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퀘벡인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끼치는 그 외적 존재는 무엇일까? 그들의 이웃이며 타자인 퀘벡 외 지역에 거주하는 불어 사용자들, 유대인들, 퀘벡의 영어 사용자들, 카나다의 영어 사용자들, 미국인들 그리고 그 외의 세계 각국인들이 이에 포함될 것이다. 그 간에 퀘벡인들은 동포들의 후원을 받으며, 모국의 외교적 경제적 입장에 편승하여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업적을 이룩하는 일에 주력하기 보다는, 카나다 내에서 장자권을 쟁취하려는 노력에 더 많은 힘을 쏟아 왔다는 자기평가를 하고 있다. 정복당한 소수 민족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적에게 자신들의 단일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지니게 된 그들은, 단일성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인다. 가령, 전일주의자들 *Unanimistes* (Léon Dion, 1987 : 69)로 불리우는 퀘벡당 *Parti québécois*이 퀘벡의 독립을 뚜렷한 정치노선으로 들고 나오는 현상이 그 첨예한 예가 될 수 있겠다.

이러한 현실에 처한 퀘벡인들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추구하는 것은 불어권 사회로서의 퀘벡이다.

불어계 주민들은 영어계 주민들, 그리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협조 속에서 퀘벡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의롭고, 가능하다면 가장 영화로운 사회로 만들고 싶어한다. 각자의 권리가 존중되고 모든 분야에서 불어의 우선권을 인정받는 사회 말이다 (Léon Dion, 1987 : 69).

이와 같이 불어의 우선권이 인정받는 사회를 희구하는 그들이 불어 문화 혹은 프랑스적인 문화를 지향하는 것은, 일견 자연스러운 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에 대한 퀘벡인들의 의식이 반드시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다. 프랑스가 언어·문화적으로는 퀘벡과 다분히 동질적인 데가 있지만, 동시에 프랑스는, ‘약속의 땅’을 찾기 위해 그들이 의도적으로 떠나 온 옛 조국이다. 요컨대, 그들은 프랑스 사회가 제안하는 삶이나 존재방식에 자신들의 생활 양식을 맞추어 나가는 일을 거절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스스로를 유배시킨 ‘유배당한 사람들’이며, 프랑스의 민족적 정체성에 적응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다. 프랑스 사회 속에서 느꼈던 주변성과 그들 내면의 변화와 ‘진보’의 정신은 프랑스의 국가·민족적 정체성의 보호에 위협적인 요소로 간주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그들은 스스로 떠나 온 프랑스를 위해서, 또한 프랑스의 언어와 문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타민족에 대항해 싸웠던 것이고, 여기에서 바로 프랑스와 프랑스 문화에 대해 퀘벡인들이 가지는 양면적 태도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무장봉기나 테러리즘으로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고양시켜 보려는 선동을 시도하기도 하였지만, 그 간의 과격한 시도로는 자신들의 기대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 때문에 절망의 논리로 굴절되기도 했다. 가령, 영연방의 카나다라는 체제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기 어렵고 민족적 정체감을 표상하기가 여의치 않다면, 차라리 보다 부강한 미국에 합병되는 편이 낫겠다는 발상이 그 중의 하나이다. 특히 1837년에서 1838년 사이에 일어났던 폭동 사건들이 영국 군대에 짓밟힘으로써 불어계 주민들의 의식 속에 실패의 원형의 하나로 고착되었고, 마침내는 자신들이 거듭되는 실패와 패배의 희생물에 불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들의 의식 속에 자리잡게 된 것이다. 조국을 떠나 온 그들이 새로운 환경에 처하여서는 오히려 그 옛 조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점이 아이러니칼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다른 식민지 사회의 형성 과정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이 글의 첫머리에서 지적했듯이, 언어 환경의 고립으로 인해 퀘벡의 불어에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 주요한 예로 꿈을 수 있는 것은 퀘벡에서 사용되는 엄청난 양의 영어식 표현이다. 미국과 카나다의 양대 영어권으로 포위된 퀘벡 지역의 언어에 나타나는 영어식 표현의 대부분은 영어가 불어식으로 변한 것들이다. 가령, 땅콩을 뜻하는 peanut에서 온 pinotte, 강낭콩을 지칭하는 영어의 bean에서 유래한 binne 등은 그 단적인 예이며, 이와 같은 어휘와 어법이 이 지역의 언어에 산재해 있다. 자동차 정비소에 가면 “On va checker vos breaks”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이 때 checker는 어미가 ‘-er’로 끝나는 불어의 1군 동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엄연한 영어 단어로, 영어의 부정사 ‘to check’의 뜻이다. 불어에는 vérifier라는 말이 따로 존재한다. 그리고 breaks 역시 마찬가지이다. 불어로는 freins이라고 해야 원칙이다. 또한 우송하다 라는 의미로 퀘벡에서는 mailer라고 말하는데, 이는 영어의 mail을 불어식으로 변형시킨 것이며 불어식으로 말하려면 envoyer par poste라 해야 한다(Jean-Marie Klinkenberg, 1991 : 97-98).

요컨대 앵글로 색슨의 세계로 둘러 싸인 지정학적 여건 탓으로 케이블 회로를 통해 불어 텔레비전 전파보다 더 많은 양의 미국 텔레비전 전파를 수신하기 때문에, 일종의 언어적 삼투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어휘적 특성 뿐 만이 아니라 억양에 있어서도 퀘벡의 불어는 사뭇 독특하다. 그래서 얼핏 들으면 영어를 듣고 있는 듯한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언어 문화의 전이현상을 고려한 나머지 영어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북미 대륙에서 퀘벡인들이 자칫하면 반쪽 짜리 어메리컨(미국인)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위기론을 펴는 이들마저 있다. 게다가 이와 같은 우려를 뒷받침해 주거나 하는듯이 오늘날 퀘벡의 젊은 세대의 의식을 조사해 보면, 그 중 25% 정도는 개인적인 지적·정서적 혹은 문화적 표현을 할때 반드시 불어를 사용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고백한다. 사실, 그들은 영어의 침입으로 인해 불어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잘설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최근의 이 통계는 그 숫자가 청년층의 25%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는데(Guy Rocher, 1979 : 35-36), 문제는 이러한 경향이 확산되어 가는 추세라는 데에 있다.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집단 정체성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불어를 수호해야 한다든지, 그것을 순화시켜야 한다든지 하는 의식이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식의 부재는 곧바로 문화·사회·정치의 현장에서 그들 스스로를 소외시켜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바로 이러한 사회·문화적 상황이라는 문맥에서 볼 때, 퀘벡에서 자신들의 영토의 진정한 주체가 되기 위해, 그들 고유의 정체성을 표상해 줄 수 있는 국가를 새로이 세우고자 하는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퀘벡의 기성세대이지, 학생들이나 청년층이 아니라는 사실은 주목해야 할 일이다.

거리적인 여건으로 말미암아, 세계 어디서나 범람하는 미국 문화적 요소를 남달리 많이 흡수해야 하는 카나다는 이웃해 있는 미국이라는 타자를 지속적으로 의식해야만 한다. 미국에 대한 이들의 의식 속에는 상대가 사라져 버렸으면 하는 생각과 함께, 다른 한 편으로는 그들을 친미하는 감정이 공존하는 양면성이 있다. 상대가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은 자신들의 입지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거나 않을까 두려워 하는 심리에서 유래 한다. 그것은 두려움인 동시에 타자에 대해 느끼는 수치심이기도 하다. 이 수치심의 사회·심리적 징표들이 약 50년 전부터는 분명히 약화되기 시작하기는 했지만, 미국이라는 존재는 퀘벡인들의 의식 혹은 집단 무의식 속에 여전히 끈질기게 남아 있는 것이다.

퀘벡인들이 미국 문화에 순응 내지는 동화되기를 거부하는 까닭은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내적 욕구 외에도 미국 문화 자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감정의 양면성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는 자유에 대한 꺼지지 않는 갈증이다. 이처럼 강렬한 이미지에 견줄만한 국가적인 이미지가 없는 카나다나 퀘벡으로서는 북미대륙에서, 미국인들의 “환경”, 즉 그들의 주변적인 요소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잠재적 가능성을 늘 떨쳐버릴 수가 없다(김지하, 1993 : 392-399). 미국인들에게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저 뚜렷한 특색이 없는 열등한 이웃으로만 여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며, 북미 대륙 외곽의 끄트머리에서 프랑스의 유산에 매달려 사는 주변적인 존재로 인식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이기도 하다.

카톨릭 교회의 보호와 간섭, 그리고 사제들이 교육했던 근면, 성실의 교훈에서부터 방임된 퀘벡인들로서는 여과나 해체의 기능을 지닌 어떤 투파막도 거치지 않은 채 방사되는 미국이라는 신기루에 저항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은 쉽게 짐작이 가고 남음이 있다. 게다가 미국은 내부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점에 도달해 있으며, 혁기증을 유발시킬 정도의 혼돈 속으로 힘들하려 하고 있다. 그러한 현상의 여파를 받는 카나다나 퀘벡도 이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혼란을 겪게 된다는 사회학적 분석이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합병이라는 문제가 때로는 어떠한 소원이나 일종의 운명적인 유혹인 것처럼, 상당수의 퀘벡의 사상가들이나 정치인들이 염두에 두는 구도였던 것이 사실이다. 기대와 비전으로 가득 찬 신세계에서 프랑스의 문화를 다시 꽂아워보려 했던 그들의 꿈을 추구해 가는 과정에서, 풍요롭고 안락한 물질생활을 구가하는 미국의 문명은 커다란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미국은 비취지는 각도에 따라 꿈의 땅이 될 수도 있고, 악몽의 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퀘벡이 미국 문화에서 바람직한 점들을 수용함과 동시에 자신의 문화적 본성을 부식시킬 위협이 있는 면은 거부할 수 있는 충분한 자생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퀘벡의 문화 현실에 비취 볼 때 이 질문에 부정적인 대답을 해야 한다면, 퀘벡도 영어권 카나다나 다른 없이 미국의 문화 수출을 위한 돌파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이러한 자성적 비판에 부합하려는 듯, 그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자신들을 프랑스적인 아메리카인 *Américains français*, 즉 그들 고유의 원천을 상실하지 않은 신대륙의 시민으로 인식받고자 한다. 미국의 언어와 문화가 발휘하는 가차없는 힘이 퀘벡을 완전히 흡수해 버림으로써 자신들의 사회적 자아가 내는 목소리가 영영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일밀의 불안감을 안고 있는 퀘벡인들은 북미 대륙에서 그들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프랑스적인 문화를 지키며 “특수한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는 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도 여전하였지만 불어권 카나다인들이 오늘날에도 겪고 있는 정체성의 균열이라는 증상이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은 퀘벡이라는 민족 공동체의 영광이 위협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 신기루에 대한 투쟁이라는 주제가 지성인들을 결속시키고 있고, 극단적인 경우로, “진보를 표방하는 미심쩍은 문명의 이기”, “돈의 승배”, “물질주의적인 성향”, “감정의 불모화”, “불건전한 도회 생활의 분위기” 등을 비난하는 일종의 미국 혐오증을 주제로 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일단의 지식인들의 범주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아돌프 루티에 Adolphe Routhier, 젤 폴 Jules Paul, 타르디벨 에드와르 드 느베르 Tardivel Edward de Nevers 등은 미국의 물질주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적 관용주의를 고발하고 있으며 미국이라는 신기루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때로는 집단적이고 극적인 표현에까지 이른다(Guild Rosseau, 1981 : 275-283). 이들은 대도시적인 세계와 대립되는 목가적인 문명을 향유할 것을 권하며, 미국에 만연한 범죄를 셧어 완벽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한다. 이는 카나다라는 국가를 건설할 때 세웠던 비전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흡사한 것이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구대륙의 문화를 새롭고 깨끗한 대지 위에 이식시키자는 취지의 움직임인 것이다. 이처럼 구대륙의 프랑스를 아메리카 대륙 위에 옮겨 놓으려는 문화이식을 가능하게 하는 출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퀘벡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 프랑스 지향적 동기를 숭배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Guild Rosseau, 1981 : 290). 프랑스식의 원칙과 사고방식을 계승하고, 이러한 이념에 바탕을 둔 새로운 프랑스를 건설하는 작업에 자신들의 정열을 바치자는 입장이다.

미개척지를 정복하려는 식민주의적 야망에서 출발한 신대륙 아주 주민들이 세운 카나다의 현재 가지고 있는 국제적 입지는 강대국의 반열에 속한다. 아울러 이 나라는 자원이 풍부하고 이미지가 평화주의적인 나라로 간주되는 동시에 다른 한 편으로는 초강대국 미국과 이웃이며 그 이미지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열등한 일종의 상동적인 자리매김을 받고 있다. 미국이 획득한 국제 사회 내에서의 기득권과 기존의 영향력이 퀘벡인들의 시야에 펼쳐질 때, 퀘벡인들은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구, 혹은 미국인들이 존재함으로써 굽절된 자신들의 바람과 이상을 거기에 투영하곤 한다. 하지만 레옹 디옹 Léon Dion의 표현을 빌자면, 이 “머리 여렷 달린 히드라”인(Léon Dion, 1987 : 92) 미국이 카나다에 암암리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 퀘벡인들은 거부감을 표한다는지 지나치게 방어적인 태도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입장을 취한다. 미국이 수 천년의 인류 역사에 있어, 진보의 사다리의 정상에 위치한다고 단정짓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물질주의, 제국주의,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 등의 사회학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곳이 역사상 처음으로 인종과 성의 불평등이라는 태고의 장벽들을 깨뜨린 약속의 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의 영향권에 속한 지정학적 여건 속에서, 프랑스 문화를 창달해 보고자 하는 퀘벡인들의 노력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카나다 전체가 그렇듯이 퀘벡도 혁명의 산물은 아니다. 퀘벡은 북미 대륙에 이식되어 변형을 겪은 식민지적 단편들이 연속적인 침전작용을 일으켜 만들어 낸 결과물이며, 또한 이는 역사적 사회적 정체성을 모색하려 하는 퀘벡인들의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 왔다(Françoise Tétu de Labsade, 1993 : 59-60).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단편들의 근간을 이루면서, 동시에 침전작용을 유도해 온 것이 다름 아닌 프랑스 문화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퀘벡인들은 자신들이 미국이나 영어권 카나다에 동화될 수 있는 가능성에 잠재하고 있는 지정학적 여건에 처해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다. 게다가, 영어권 카나다인들이 연방의 중심부에서 퀘벡을 면방에 위치하는 것으로 바라보려는 욕구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마다 불어계 카나다인들은 그만큼 더 소외감과 이질감을 느껴왔다. 영어계 카나다인들의 그러한 시각은 카나다라는 연방국가가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헌법상의 정치적 비견을 흐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퀘벡인들이 그들에게 요구하고 지향하는 평등의 이념에 배치된다. 이 때 평등이란 헌법에 규정된 규범상의 평등에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서 심정적으로, 확인되며 의식속에서 느껴지는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불어권 카나다인 중에 카나다의 현재 수도인 오타와가 진정 자신들의 조국의 수도라고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예로

듣다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민족의 후예들이다. 카나다가 우리의 조국이 아니던가. 이제 우리도 목소리 높여 자기 주장을 하겠다. 남들에게서 인정받겠다. 그리고 존경받겠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운명의 주인임을 잊지 말자. […] 이제 요구사항이 있다면 평등이다. 불어권 카나다 사람들 중에 오타와에서 마음 편하게 지낼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아무래도 그 도시가 자기들의 수도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Murray Ballantyne, 1962 : 28-33).

영국 여왕이 자신들의 상징적 대표라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감응이 느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타와가 수도라는 사실과 ‘영연방 카나다’를 떠올릴 때면, 자신들이 주인이어야 하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쓰는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패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는 자각이 일깨워져 피정복민족의 상처만 쓰라리게 자극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인식에 근거하여 그들은 자기를 방어하려는 보수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불어를 수호하려는 그들의 노력이다. 이와 같은 맥락의 연장선 상에서 그들 고유의 프랑스적 본질을 극대화하려는 움직임이 바로 분리주의 운동이다. 언어란 한 민족의 존재의 기초이며, 문화 전체를 반영하는 기호이므로 만일 퀘벡인들이 북미의 영어권 문화에 흡수 동화되어 버린다면, 불어를 사용한다는 특성으로 결속된 퀘벡이라는 민족적 존재가 서서히 소멸될 것이다. 이러한 불행스러운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바로 분리주의 운동이다. 그이를 방관한다면 퀘벡의 어느 정치가의 표현대로 ‘인류에 대한 범죄’가 될 것이므로, 인류의 다양한 모습을 반드시 보존해야 되겠다는 그들의 각성은 문화인류학적인 의지를 함유한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어를 모국어로 하며, 불어권 문화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처하는 퀘벡이, 영어의 세력이 다른 어느 대륙보다도 강한 북아메리카에서 자신들의 언어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를 자유롭게 펼치는 핵심적 극체로서 나아갈 수 있는 출구는 과연 존재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처방이 주효하리라는 의견이 퀘벡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요컨대, 북미의 영어권 문화에 대해 공연히 장벽을 설정해서 대항할 것이 아니라, 영어권 문화를 길들임으로써 가능한 돌파구를 마련해 가자는 것이다. 지리적으로나 사회 경제적 정황으로나 영어권 문화의 매력을 외면할 수는 없는 형편이므로, 자신들이 그 문화에 유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자는 입장에서 출발한 이 제안은 종래의 어느 입장보다 한결 더 자신감을 회복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문화가 침입한 다음 이에 대처하는 방식을 취하자는 것이 아니라, 북미 영어권 문명의 실상에 대해 생산적인 비판을 시도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잘 추스려 보자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이미 단죄받고 있는 아메리카니즘은 부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당하고 있지만 놀라운 자부심을 과시하면서 각종 고급 기술 – 유전자 공학, 컴퓨터 공학, 우주 개발의 과학적 체계 등 –로 인류의 실제 생활에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세계는 그들의 이러한 업적을 잊었는지, 현대 미국의 문명이 혁명적으로 재조정되지 않는다면 급기야 파국을 맞아 부정적이고 악마적인 모습으로 변신하고 말리라는 우려 섞인 예언을 하고 있다. 이 때 혁명적인 재조정이라 함은 인류와 환경을 포함한 전

생태계가 더불어 같이 생존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재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을 감안할 때, 편안한 물질 생활의 추구로 귀착될 수 있는 미국 문명의 과상성과 그 거역할 수 없는 마력을 초극할 수 있는 통로를 모색한다면, 그것은 케베의 지역문화에 기반을 둔 개인의 창조성을 함양함으로써, 케베이 정신적 생산의 공동체가 되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 더욱 더 활발하게 전개되는 길이 될 것이다. 결국 미국과 영어권 문화 전반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책이란, 불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로서 고유한 문화를 보다 고급한 차원에서 꽂피워, 사방에서 밀려드는 저급 문화를 순화시키고, 나아가서는 북미 대륙의 정신적 지주의 위치를 확보해보겠다는 문화 지상주의가 될 것이다.

4. 케베인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분리주의 운동

북미 대륙에서는 사업에 투신한다는 것이 예외없이 “영어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불어 사용자들과 영어 사용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에서 부담을 겪어야 하는 쪽은 언제나 불어 사용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담 때문만은 아니라 하더라도 경제와 언어문화 사이의 상관성이란 진밀한 것이므로, 케베인들은 “자유직”으로 진출하는 경향이 강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얼마전부터 바뀌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불어 사용자들이 경제계나 과학 연구 분야에 투신하기를 회피하던 성향이 점차로 사라지고 있다. 어느 학자의 표현대로 실업·경제·과학과 같은 상대적으로 보다 더 실리지향적인 분야에 케베인들이 참여하는 비중이 근래에 상당히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제, 불어 사용자들은 북미 대륙을 불어로 개종시키겠다는 목표까지 세우지는 않지만, 경제나 산업 부문에서 불어가 통용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는, 즉 일종의 불어권 경제 단위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계획은 세우고 있다. 이러한 소망 속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현상은 모국어가 불어인 대학생들 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체에서 일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직접 창업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케베인들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문화유산을 선양하려는 그들의 정치적인 노력은 어느 때 보다도 적극적으로 민족주의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 혹은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일에 못지 않게 자신들의 언어를 수호하고 교육하는 작업에 많은 정력을 소모해야만 하는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깨닫고 있으므로 케베인들은 케베에 고유한 불어권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러한 목표에 다가 가기 위해, 케베인들은 개개인의 사회경제적 성취를 통한 부의 축적과 균형한 생활 분위기, 그리고 진취적인 정신 자세의 진작을 필수적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많은 불어 사용자들이 여러 경제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이웃인 영어 사용자들과 동등하고 당당한 자세로 지내는 법도 이미 체득하고 있다. 과거에는 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는 불어계 주민들의 인구 비율이 영어권 카나다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았었고, 동일 직종에서도 고위

작은 주로 영어계 주민들이 차지하고, 하위적이 퀘벡인들의 뜻이었다. 이러한 불균형은 최근에 들어 현격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에 르네 레베크 René Lévesque 수상이 재임한 아래 퀘벡 주에서는 배타적인 민족주의적 분위기 때문에 많은 영어계 주민들이 떠났다. 이로 인해 영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퀘벡은 영주할 곳이 못 된다는 인식이 심어졌고, 그 결과 퀘벡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던 다른 영어권 주민들마저 퀘벡에 거주하려는 의욕을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에 따라 영어 사용자들은 그들의 퀘벡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음을 감지하게 되었고, 자기들이 소수집단으로 변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유수한 기업체와 보험회사 등이 퀘벡 민족주의라는 강풍에 밀려 나간 후, 몬트리얼이나 퀘벡 주의 여러 도시에서 느껴지는 영어계와 불어계 주민 사이에 감도는 숨겨진 긴장감은 두 집단 사이의 충돌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한 긴장관계가 화해와 평화의 관계로 변형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낙관적인 전제 하에 발기된 조직도 존재한다. 이를하여 “퀘벡 연합 Alliance Quebec” 인데, 이들의 활동 목표는 언어적 이질체인 두 집단 간의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상황적인 교차로 carrefour circonstanciel”的 역할이다. 이러한 공동체 사이의 연결 기능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발휘될지는 다소 회의적이나, 그 상징적인 의미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Léon Dion, 1987 : 73). 실제로 이 단체는 영어 사용자들에게 불어 사용자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조심스럽게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퀘벡 주에 거주하는 영어 사용자들은 그 지역에서 자신들이 소수라는 현실을 수락하며, 상당수는 이러한 위치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별 꺼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한 발 더 나아가 외부인들에게 퀘벡 주의 불어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소개한다든지 해석하여 주는 역할을 하곤 한다. 단지 애석하게 여겨지는 점이 있다면, 퀘벡에 거주하는 상류층, 가운데서도 꼭대기에 있는 몬트리얼의 중심부인 웨스트 마운트Westmount 지역에 거주하는 영어 사용자들은 그리 포용력을 지닌 사람들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우위에서 표출되는 자부심이 종종 불어계 퀘벡인들과 구별되고 싶다는 욕구와 결합되어 나타날 때가 있으며, 이 때문에 퀘벡의 불어 사용자들은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도 두 집단 간에 의사소통이 보다 활발해지도록 하기 위해 “모두가 형제”라는 사해동포주의적인 관념을 확산시키고 고취하는 길 이외에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지극히 평범한 대안만이 제시되고 있을 따름이다.

결국은 그러한 의식과 길항적으로 작용하는 감정적인 측면이 문제이다. 그 중의 하나가 영어권 카나다가 불어권 카나다에 대해 품고 있는 일종의 적대감이다. 퀘벡 주의 카나다인들은 다른 주의 카나다인들이 발휘하는 동화력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할 만큼 색채가 뚜렷한 집단 정체성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영어권 카나다는 그러한 독특한 정체성을 지니지 못한 채, 미국과 거의 흡사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카나다의 두 언어권은 각기 타자가 자신을 잠식할지도 모른다는 일종의 두려움 같은 것을 느끼고 있다. 이러

한 감정은 사회·정치적 위기의 순간마다 상대방에 대한 무시나 증오로 변형되어 표출되기도 하고 상대방이 사라졌으면 하는 욕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다면 두 언어집단이 서로를 수용하고 이해함으로써 지속적인 화해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걸 뿐이다. 그러나 이의 실행을 가로막는 난점 역시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퀘벡 주 내부의 문제인데, 예술 혹은 지적인 분야의 엘리트들이 대중과 의미있는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 대중은 미국 문화가 보여주는 매력에 완전히 빠져들어 영어나 영어권 문화에 오히려 무감각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현실이 그것이다. 이러한 성향을 둔화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 문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과감하게 수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실생활에 유익하게 대중적으로 적용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자성적 비판이 일고 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제작된 비디오를 불어로 번안한다든지, “세계인의 언어”인 영어로 된 엄청난 양의 대중매체들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여과 장치를 고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대중매체의 무분별한 수용은 퀘벡내 계층 간의 문화적 간극을 넓히기만 할 뿐이기 때문이다. 여과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외부의 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입하면 혼란이 오는 까닭에 장-사르르 팔라르 Jean-Charles Falardeau가 표현했듯이 “거대한 가위의 벌어진 두 다리”처럼 퀘벡의 엘리트들과 대중 사이에 존재하는 도량을 좁히려면 각 계층이 공유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Jean-Charles Falardeau, 1967 : 43).

분명, 개인으로서의 불어계 카나다인이 친대받는 일은 오늘날에 와서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집단으로서의 불어 사용자들과 카나다 연방의 주 état로서의 퀘벡은 카나다 내에서 놀림거리가 됨을 종종 보게 된다. 카나다가 현재와 같은 연방체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려면 각 주 간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며, 각 주가 문화 혹은 문물을 주고 받는데서 오는 호혜적인 이득이 항구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부분의 카나다인들은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연방체제 속에서 하나의 주로 존재하는 퀘벡이 다른 주와 문물을 교환할 때 구매력을 지니는 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퀘벡인들이 보유한 문화적인 창의성일 것이다. 이는, 영어 사용자들이 실리주의에 밝고, 불어 사용자들은 예술감각이나 역사의식에 상대적으로 더 뛰어나다는 선입견과 전혀 무관하지만은 않다.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는 쉽사리 판가름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그러한 선입견이 지나치게 과장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가령, 불어 사용자들은 역사의식과 관련이 깊은 분야에 뛰어나고, 영어 사용자들은 실리와 직결되는 경제·과학 등의 분야에 더 활발히 참여하는 편이기 때문에 후자는 공간을 중시한 나머지 토착민과 혼혈아들에게서 빼앗은 공간에만 가치를 부여한다는 식의 단순화된 논리로 치닫는 불어계 카나다인들의 주장을 간혹 듣게 된다. 이러한 편견이 자리잡은 현실에 대하여, 영미의 비평가들은 나름대로의 해석을 부과하고 있다. 가령, 영문학을 보면, 그 내용의 전개가 사람·환경 혹은 사람·사회의 수평축을 따라 진행되는데 반해, 프랑스 문학은 사람·운명, 혹은 사람·절대의 관계라는 수직축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다(1967 : 43).

물론 문학에 나타나는 그들의 민족적 성향을 보면 두 언어집단의 상이성이 잘 표출

되고 있기는 하다. 이러한 비교나 구분을 시도할 경우에도 자의적으로 양분할 수는 없으며 여러 작가와 작품에 따라 허다한 다양성과 일탈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단지 여기서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는 점은 퀘벡인들은 불어를 쓰기 때문에 프랑스와 언어적 동질감을 느끼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프랑스의 식민지였다는 사연 때문에, 모국의 문물과 생활방식, 그리고 사회·정치구조를 많이 계승하려는 태도를 취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 때문에 퀘벡은 언어·문화적으로 프랑스와 친화적인 성향을 많이 가져왔다. 특히 1960년 이래로 퀘벡이 프랑스와 더욱 더 개별적이고 긴밀한 접촉을 다양하게 가지려 하자 연방 정부는 이에 대해 번번히 결끄러운 반응을 보이곤 했다. 그러한 마찰이 노출될 때마다, 퀘벡인들은 자신들이 자연스럽게 프랑스 쪽으로 경도되고 있으며, 영어권 카나다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과 자신들의 방향은 궁극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곤 했다.

불어를 사용하고, 프랑스 문화 쪽으로 경도되는 성향이 있는 퀘벡인들에게 영연방이라는 표피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영연방을 표방하는 카나다로부터 독립하여 정치적 변화를 이루하자는 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는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그러나 지적인 소양을 쌓는 도상에 있는 학생들이나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부류의 집단적인 의사표현이 별로 들려오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성향은 전 세계적으로 계층에 관계없이 팽배해가는 개인주의 풍조의 한 단면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개인적인 아니, 소시민적인 행복의 추구, 즉 생활의 의미가 개인의 직업적인 성취와 이성교제의 성공으로 요약되는 사회 분위기와 이러한 가시적 목표를 추종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집단무의식이, 퀘벡의 독립이라는 민족적 사안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저해하는 작용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퀘벡이 진정으로 독립을 원하고, 그 독립이 당위적이며, 실현가능한 제안이라 하더라도 이를 성취하려면 어느 당의 구호나 정치 선전이 아니라 불어를 사용한다는 통일된 정체성을 구심점으로 한 시민들의 지속적 운동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각성이 일고 있다.

여기에서 진실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다. 그것은 퀘벡의 분리주의 운동이 궁정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여지란 과연 있을까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궁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논거는 분리주의 운동을 카나다 내에서 양대 언어권이 불가피하게 각자의 민족 감정에 지배될 소지를 가지고 있는 성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는 뜻이 표출된 움직임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카나다의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잣대로 죽죽 그어 놓은 각 주의 경계 구분 방식은 주권국가를 모아 놓은 형태로 연방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체제를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연방체제가 그들의 생태적인 조건에 알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퀘벡인들이 고향에 뿌리를 가진 생태적 삶을 바로 그들의 독립운동의 동기라 할 수 있다. 그들은 국민국가의 논리와 기하학적 선에 의해 분단된 생명과 생태계를 회복하고자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왜 카나다가 이분화 되어야 하며, 퀘벡인들은 분리주의 운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의 여지는 여전히 남는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퀘벡

인들이 불이를 쓰고 프랑스 문화를 전수한 까닭에 그들의 정신은 프랑스 지향적이다. 또한, 본래 인디언들의 땅이었던 퀘벡은 일찌기 프랑스인들의 식민 대상이 되어, 프랑스 땅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상의 사실 때문에 그 지역의 토착민이었던 인디언들은 피해의식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정치화해서 면세, 사회보장 등의 특혜를 요구하여 스스로 고유한 생활력과 저항력을 약화시켰고 급기야는 민족적 토대의 궤멸을 가져오기에 이르렀다. 한편, 퀘벡대로 영어권 카나다에 정복당했다는 의식 때문에, 피지배와 예속의 복합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디언들처럼 무작정 카나다 내에서의 예외적 위치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 중의 하나가 바로 퀘벡의 독립이라는 선택인 것이다. 퀘벡인들은 영어권 카나다와 상호 협동하고, 공생한다는 이상적인 방안에 이성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심정적으로는 욕구불만을 느낀다. 이러한 불안은, 카나다 내의 영어권과 불어권이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동거 관계를 갖는다면 별다른 거부감이 없겠으나, 영속적인 동거 계약을 맺어야 할 자연스런 심정적 동기를 느낄 수 없다는 데에서 연유한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영어권 카나다에 대해 민족적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만일, 퀘벡의 자생력이 아주 약해서 인디언들처럼 자신들이 정복당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들고 나와 그것을 미끼로 기시적이고 물질적이며 찰나적인 요구를 채워가야 할 형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정치적 행동은 세계에서 몇 번째로 꿈을 정도의 ‘선진국’이 될 수 있을 만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중적인 입지 속에서 그들이 자기 정체를 확인하게 되는 계기는 영연방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자신들이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의식이다. 카나다라는 연방 정부가 표방하는 대의명분이 실질적인 것이 되려면 그 구성원의 삶이 ‘살맛나게’ 성취되는 민족 사회에 대한 구체적 전망이 있어야 하는 법이지만 바로 민족 사회에 대한 구체적 전망이라는 대목에서 영어권 카나다와 불어권 카나다는 입장이 갈라지고 만다. 그리하여 감성적인 민족주의나 폭력적 독립 쟁취론들이 제기되었다. 독립이든 연방체제의 유지를 어느 편이 구성원들의 보편적인 생존에 기여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개별적 가치들을 통합해내는 전체가 있어야 하고, 그 전체가 자유롭게 생동하는 삶이 필요할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민족적 자아인데, 문제는 이 민족적 자아의 자유가 퀘벡인들의 가슴 속에 그리 넉넉하지 못하다는 데에 있다.

그 까닭은, 작전 크건 간에 퀘벡인들의 심정 속에 영어권 카나다인들에 대한 일종의 종오심이 있으며, 불어권 카나다인들에 대한 영어권 카나다인들의 감정 역시 이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종오심이 있다기 보다는, 종오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고 하는 편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만일 지리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피를 흘리며 싸웠던 식 민지 전쟁이라는 살육의 과거가 없었다면, 피차간에 필요한 평화적 상호보완 관계를 유지하며 마음을 비울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기에는 한(恨)이 너무 많은 것이다. 현재의 청장년층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바로 그 살육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었기 때문이다. 영국에 정복당함으로써 성립된 지배와 종속의 수직적인 이

분법적 관계에 사로잡혀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소망이지만, 이와 같은 민족감정이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는 데에 문제의 요체가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영어권 카나다인들 중에는 카나다라는 정체성 안에 불어권 카나다를 통합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명분이나 정신을 추구한 이들도 있었다. 모어던 W. L. Morton 같은 사람은 영어권 카나다 중심의 시각을 탈피하여 ‘통합 카나다 Canada-Uni’라는 개념을 최대한 밀고 나간 사람이었다. 그는 말하기, ‘통합 카나다’라는 관념 속에서 불어계나 영어계나 하는 생각을 지워버리고, 그것을 ‘카나다를 구성하는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치환하면서 ‘전 카나다인 all canadians’라는 개념이 자리잡을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을 했다 :

어느 지역 출신인가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영국, 프랑스, 독일, 우크라이나,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 이태리, 카나다 국적을 가진 그 외의 어느 나라 출신이라 하더라도 상관없다. 우리는 살아온 각자의 과거에 등을 돌리거나, 원래의 국적에서 다른 국적으로 개종하는 소란을 떨지 않고도, 조용하게 카나다인이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래에는 카나다인 대다수의 국적이 완전히 다른 성격의 것으로 변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 국적은 어느 민족이냐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 될 것이다(Charles Taylor, 1982).

또한 머레이 벨런타인 Murray Ballantyne은 카나다가 이 지구 상에서 하나의 위대한 국가로 존재하려면 불어 사용자와 영어 사용자의 변증법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불어계 카나다인들의 입장이다. 이들의 의식이나 태도가 카나다가 단합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인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영어 사용자나 불어 사용자라는 정체성 말고 카나다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하며, 바로 그러한 정체성에 자부심을 느껴야만 한다고 계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론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은 이상론적인 주장이 실현되려면, 수적으로 열세한 불어 사용자들이 의사소통의 부담을 겪어야 한다는 문제가 자동적으로 제기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 영어권 카나다인들이 불어권 카나다인들에게 “우리는 당신들을 이해합니다” 혹은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당신들을 받아들입니다”라는 봄짓이나 발언을 한다 해도 하나의 상투어구로 들릴 뿐이며 그 말이 과연 진정인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어계 카나다인들이 불어계 카나다인들에게 카나다의 수도나 중심부에서 편안하게 느끼도록 제안하는 표어들을 제시해도 후자는 거부감을 느낄 뿐이다. 카나다라는 명분을 들고 나오면서 결국 영어권 카나다 중심의 관념과 정체성을 추구할 뿐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기 때문에, 퀘벡인들은 영국적인 것을 피하게 되고, 자기들의 자아 속에서 영국적인 것의 영감을 받은 정서적 혹은 관념적인 단편들을 제거하려는 경향을 가지게 된다. 퀘벡인들은 이질적인 이웃과 동일하다고 믿는 일종의 자기기만에 빠지기 보다는, 자아는 타자에 의해서 존재하며, 타자 즉,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해 주는 타자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래서 오늘날, 퀘벡인들은 ‘특수사회 퀘벡’이라는 집단 정체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원성 dualité’이라든지 ‘이원론 dualisme’의 개념을 사용하게 되었다. ‘특수사회, 퀘벡 Québec, société distincte’이라는 제안에 카나다의 연방정부 수상과 영어권의 각 주의 수상들은 물론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불어계 카나다인들은 이러한 발상을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어떤 특권을 부여받은 듯이 보일지 모르나, 자신들이 주인의식을 갖는 데에 오히려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집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가시화 할 뿐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그 이질성이 다른 영어권 주와는 달리, 불어를 쓰고, 그로 인한 문화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바로 그 점 때문에 카나다라는 나라가 이질적인 집단의 공조체제라는 특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뜻으로 인식되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바로 그 점이 카나다라는 나라가 지구 상에서 지니고 있는 특징이다. K.K.K. 혹은 신나치주의 등의 민족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구라파나 북미의 현재 상황을 보면 이질적인 민족들이 더불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 아니 적어도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전망을 제시해 주는 다문화주의의 바람직한 예를 보여 줄 수도 있다.

현재, 세계는 정보화가 고도로 진행되면서 창조가 고취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 일본은 컴퓨터 시대를 넘어서는 창조적 발상 지원 시스템의 시대, 아이디어의 시대, 문화력의 시대, 문화 상품의 시대, 창조적 인간정신의 상품화 등의 국면으로 이미 접어든 상태이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으며 컴퓨터에서도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고도의 창조적 발상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한 마디로, “창조”의 시대가 개막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나 데이터 중심이 아니라 인간정신이 가진 창조 능력이 대거 요청되고 있다. 환언하면, 창조적 삶, 특히 개인이나 소집단의 문화 보존 능력, 각 지역의 기총문화가 가진 생명과 가치가 더욱 더 중요시 되고 있다는 말이다.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북미 대륙에 속한 퀘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제시될 것이다. 미국이나 영어권 카나다의 문화적 한계를 극복하여 이를 불어와 프랑스적인 내용, 그리고 퀘벡 고유의 토속성으로 초극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촉점을 맞추면 퀘벡 내의 예술가들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지금도 카나다 내에서의 문화 활동, 가령 회화, 음악 등의 부문에서 퀘벡 예술인들의 활약은 두드러진다. 그러므로 퀘벡인들은 이러한 특성을 더욱 개발하여 그들의 전통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역동화시켜 퀘벡 고유의 문화적 축적을 이루어야 한다. 아울러 이를 집중 연구함으로써 창조적인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의 창조적 영성이 고양되고, 지역 내에서 소그룹 혹은 개인간의 토의와 자주적인 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김지하

1993, “환경과 풀뿌리 민주주의”, 『모로 누운 돌부처』, 나남문학선.

원윤수

- 1994, “캐나다 캐베과 그 언어”, 『프랑스 문학권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 Aquin, Hubert
 1965, *Prochain épisode*, Montréal, Cercle du Livre de France.
 1982, *Blocs erratiques*, Quinze, Montréal.
- Ballantyne, Murray
 1962, “What French Canadians Have Against US”, *Canada : expérience réussie ou ratée*, Quebec, Press de l'université Laval.
- Dion Léon
 1987, *A la Recherche du Quebec*, tome I, Les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 Gagnon, Alain
 1992, “La Constitution du Canada et la situation politique”, 『불어문화권 연구』 제 2집,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문화권 연구소.
- Klinkenberg, Jean-Marie
 1991, “프랑스 밖의 불어 Le Français hors de France”, 『불어문화권 연구』 창간호,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문화권 연구소.
- Lacroix, Jean-Michael
 1992, “Le Pluri-éthnisme canadien-Au delà de la fusion et de la confusion”, 『불어문화권 연구』 제2집,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문화권연구소.
- Larose, Jean
 1981, *Le Mythe de Nelligan*, Quinze/Prose exacte.
- Marthy, Jean-Phillippe
 1993, *Extrême-Orient*, Univ. of Chicago Press, Chicago and London.
- Miron, Gaston
 1970, *L'Homme rapaillé*, Montréal, Presses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Notre société et son roman, Montréal, HMH.
- Morin Michel et Claude Bertrand
 1977, *Le territoire imaginaire de la culture*, Brèches, Montréal.
- Rocher, Guy
 1979, “Le Québécois, un certain homme nord-américain”, in *Dossier Québec*(direction de Jean Sarasin), Montréal, Stock.
- Taylor, Charles
 1982, *Radical Tories*, Toronto, Anansi.
- Têtu de Labsade, Françoise
 1993, “자기 동일성의 단장들, Fragments d'identité”, 『불어문화권 연구』 제 3집,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문화권 연구소.
 1989, *Le Québec : un pays, une culture*, Boréal/Seuil.

Vallières, Pierre
 1967, *Nègres blancs d'Amérique*, Montréal, Parti pris.

Étude sur la nouveauté culturelle du Québec francophone

Pyung-Kun Yu and Whan Lee

L'immigration du peuple francophone au Québec, commencée à l'époque des grandes découvertes par la colonisation française au 16^e siècle a produit le Québec, une société francophone. Durant le processus d'établissement de son identité culturelle propre, cette société a dû subir des difficultés causées par la défaite française pendant la guerre de colonisation entre la France et l'Angleterre.

Les québécois francophones devenus 'colons colonisés' ont été non seulement exposés à des menaces constantes d'assimilation au monde anglophone mais aussi ont eu conscience d'être des 'conquistadors conquis'. Néanmoins, ils ont considéré le français, leur langue, comme le moyen de s'identifier, d'avoir une identité. C'est pourquoi ils se sont continuellement efforcés de protéger leur langue maternelle. Cet effort volontaire a été concrétisé à partir de la fin des années 1960 à travers du mouvement de réforme des mentalités qui s'est développé au Québec, 'la révolution tranquille'. Ce mouvement a permis de dépasser le dualisme des langues, en insistant sur le monolinguisme et l'utilisation exclusive du français.

Les québécois catholiques francophones étaient entourés par des anglophones protestants et ils étaient isolés sur le plan du langage. Cela a retardé l'évolution diachronique du français dans cette région. Il se trouve que le français québécois a des caractéristiques spécifiques lexiques et phonétiques, différentes de celles du français français et le dialecte appelé 'le joual' vient de ce français québécois. Mais on remarque souvent que cette différence régionale et pragmatique fait que le français québécois est considéré souvent comme simples d'erreurs.

L'ambivalence du sentiment des québécois envers les Américains vient de leur désir de les voir disparaître et à la fois de leur admiration pour eux. Malgré ce double état d'esprit, les canadiens français n'ont pas une attitude de confrontation avec eux au lieu d'exprimer leur sentiment de répugnance ou d'avoir une attitude défensive.

De la condition géographique du Québec entouré de régions anglophones naît l'idée de séparatisme et ce mouvement peut être considéré comme positif en tant que tentative de se libérer de la domination inévitable par le sentiment national. D'autre part, la

coexistence et le système coopératif des deux groupes hétérogènes du Canada actuel est une preuve qui montre qu'il existe un exemple réussi de multiculturalisme possible qui la planète.

A notre époque à l'on passe des informations à la créativité, le Québec doit dépasser les limites de la culture américaine ou anglophone avec sa culture folklorique et de base, pour essayer d'accomplir une accumulation de culture et pour établir son identité et une originalité culturelles propres. Pour cela le rôle des artistes et des hommes de lettres aura plus d'importance que d'autres éléments matériels.

유평근, 서울대 인문대 불문학과 교수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Tel : 880-6117(O), 557-7362(H) Fax : 886-4076

이 환, 서울대 인문대 불문학과 교수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Tel : 880-6118(O), 557-7362(H) Fax : 886-4076